

냉동생지, 자영제과점 매출 소폭 성장

취급 기반 조성과 배송시스템이 열쇠

최근 자영제과점의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자영제과점에 공립되는 냉동생지 매출이 신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에서는 냉동생지 업체의 자영제과점 상반기 매출 현황을 알아보고 앞으로

냉동생지 시장이 자영제과점이라는 잠재적 시장에 어떻게 연착륙할 수 있을지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 취재 / 오형석 ohs@mbakery.co.kr

자영제과점의 냉동생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올해 들어 더욱 심각해진 자영제과점의 인력난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즉 냉동생지 제품이 가지는 장점이 자영제과점의 이해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다. 냉동생지는 그동안 주로 양산업체와 프랜차이즈업체를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져 왔으나 올 상반기 냉동생지 업체 매출을 살펴보면 점차 자영제과점에서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일제당 매출 1위 … 타 업체 전반적 매출 상승

상반기 자영제과점에 판매한 냉동생지 매출 결과 제일제당이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이 업체는 지난 3월에 베이커리 사업부내에 별도로 자영제과점팀을 구성, 5월 말경 본격 가동했다. 식빵을 비롯해 40여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이 업체의 상반기 자영제과점 매출실적은 약 3억원선으로 전국 거래처에 충북 음성 공장에서 제품을 직배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커리사업부 마케팅팀의 김송수씨는 “자영제과점과의 특별한 거래조건은 없으나 일매출 60만원 판매 가능점과 주방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10~13평 이상 규모는 돼야 한다”며 “향후 영업계획을 자영제과점의 경우 호남지방에 집중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중순부터 본격적인 냉동생지 사업을 벌여오고 있는 (주) 청아냉동식품은 다른 업체와는 달리 자영제과점을 주거래업체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 업체의 매출은 작년 하반기에 비해 평균 6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트리를 비롯해 약 20여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이 업체는 서울·경기지역에 230여개, 지방에 80여개의 자영제과점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10대의 냉동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과 부산지사에서 직배송하는 배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정승호 서울지사장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올 하반기부터 대리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혀 영업 전략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세미나의 활성화를 통해 냉동생지의 홍보 및 매출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신제품 5~10개 품목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냉동생지 수입업체인 오뚜기식품은 기준에 수입했던 품목이 외에 살구 크로와상 등 4개 품목을 추가 수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형할인점인 월마트와 거래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자영제과점 위주로 영업망을 전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냉동생지 대리점 개설과 냉동생지 시연회를 통해 영업전략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마케팅부의 강정윤씨는 “현재 대전의 성심당 등 자영제과점 20여곳데와 거래를 하고 있으며 매출도 점차 상승하는 추세”라며 “대형 점포를 중심으로 전문 프로모터를 통한 집중적 프로모션 실시로 홍보 및 판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레인 베이글을 취급하고 있는 에취알에스는 2~30군데의 자영제과점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박스 이상 주문 시 냉동차로 직접 배송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마케팅팀의 김영옥씨는 “상반기 매출은 꾸준한 편이나 앞으로 대형 업체들의 틈새시장을 어떻게 공략 할 것인가에 따라 매출 등락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서울식품은 약 60여종의 냉동생지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제과점 매출은 상반기 전체 매출의 약 40%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제과점의 경우는 본사 직거래를 통한 주 2회 배송을 하고 있으며 지방은 주 1회 배송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현재 중부권의 대리점 수는 2개점, 거래 자영제과점은 20개점으로 금년 상반기부터 대리점 위주의 판매방식으로 변화할 계획

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실 마케팅과 장남신과장은 “하반기에는 지방 대도시권의 대리점 구축에 주력할 것”이라며 “현재 매출추이를 기준으로 금년 전체 매출 목표를 8억원선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제과점 시장 확산에 아직 문제점 많아

과거에 비해 냉동생지 수요가 자영제과점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우선 고정 수요처가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많은 자영제과점은 전용 냉동고가 없는 등 냉동생지를 취급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자영제과점에서 사용하는 냉동생지 품목이 지극히 한정돼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냉동생지에 대한 기술인들의 인식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도 자영제과점 대상의 시장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즉, 오랜 세월 기술을 익혀온 기술인들이 기술력 약화와 함께 그들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데서 오는 거부감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 물류비용 측면에서의 어려움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냉동생지의 재고처리와 반품처리 등 리스크가 너무 높다는 점이 우선 제기된다. 또한 냉동창고 운영과 냉동차량의 보유 등 간접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지적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이런 지적 속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 배송시스템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냉동생지 업체의 한 관계자는 “냉동생지는 급속동결처리된 제품이기 때문에 최소한 영하 18°C에서 보관이 이루어져야한다”며 “배송시스템이 정착되면 자영제과점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럴 경우 국내 냉동생지 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표〉 냉동생지 판매업체 상반기 현황

| 판매업체 | 취급품목 | 주요거래처 (자영제과점) | 배송시스템 | 연락처 |
|--------|--|--|--|----------------|
| 제일제당 | 식빵 8종, 일반빵 13종, 도넛 4종, 조리빵 3종, 유럽빵 4종, 페이스트리 8종 | • 광주광역시 정인상사 직영 2점(동림, 월계) 생지 100% 공급 • 전국을 대상으로 하나 호남집중화 추진 중 | • 충북 음성 공장 직배송 | (02)2629-5404 |
| 청아냉동식품 | 미니크로와상, 사각시트, 식빵페이스트리 5종, 크로와상, 비틀즈, 도넛 5종, 파이 3종, 파이스트, 레이즌롤, 피자바게트 등 20종 | • 서울·경기 지역 230여점, 지방(부산·춘천) 80여점 | • 서울, 경기, 춘천-서울지사 직배송 • 부산-부산지사 직배송 | (02)529-3172-3 |
| 서울식품 | 페이스트리 17종, 단과자빵 5종, 식빵 4종, 튀김류 6종 등 60여 종 | • 굿앤굿베이커리 등 20개점 | • 자영제과점은 본사 주 2회 직배송 • 지방권 주 1회 직배송 • 대리점 위주의 판매방식으로 변화 추세 | (031)490-7024 |
| 오뚜기식품 | 바게트, 크로와상, 통밀빵, 건포도롤, 초콜릿롤, 브리오슈, 애플 턴오버, 커스타드 턴오버, 애플타르트 | • 성심당, 꿔진느프랑스 등 20개점 | • 본사 직배송 • 향후 대리점 중심으로 판매망 구축 계획 | (02)424-5321 |
| 한국필스버리 | 쿠키류 10종, 스트로델 바이츠 등 40여종 | - | - | (02)508-8500 |
| 예취알에스 | 플레인, 어니언, 시나먼, 갈릭, 홀헛&허니, 블루베리 등 베이글 6종 | • 서울·경기 지역 30개점 | • 3박스 이상 주문시 본사 직접 배송 | (02)3453-5000 |

* 위 내용은 각 업체의 자료에 근거했음. * 2000년 상반기(1월부터 6월까지) 업체 현황임. * 한국필스버리는 업체의 자료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음.